



# 의회 소식

## 의정활동 이모저모



공주시 학교 재배치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9. 24.)



시민예술공간 휴사랑 도예가회 전시회(10. 1.)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체육특사단 및 대한 펜카실랏연맹 임원진 내방(10. 1.)



제기회 백제문화제 동진성 퍼레이드(10. 3.)



공주시 왕도심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 시민토론회(10. 14.)



10월 의원 간담회(10. 15.)



###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내

**일 정** : 11. 20.(목) ~ 12. 15.(월) / 26일간  
**장 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 041-840-8015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 국립공주대 통합 추진, 지역 균형발전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공주시의회 의장  
임달희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벌대학 사업이 예비 선정됐고, 2028년 통합대학 출범이라는 일정까지 제시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저는 공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통합 추진에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공주의 정체성과 미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대는 지난 80여년간 공주의 교육·문화·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해 왔다.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공주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이곳을 찾으며 지역 상권이 유지되었고, 교육도시로서 이미지도 함께 발전해 왔다. 지역 주민들 역시 공주대를 단순한 학교가 아닌, 공주의 상징으로 인식해 왔다. 이 소중한 상징과 기반이 두 대학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약화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학 통합이 추진될 경우, 유사 학과 통폐합과 학생들의 대전 캠퍼스 이동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현재 공주대에는 약 1만 6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절반가량의 학과가 충남대와 중복된다. 이 가운데 일부만 이전하더라도 수천명의 학생이 공주를 떠나게 되고, 이는 곧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공주시는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인구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주대 학생들은 전입지원금, 정착지원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주시 인구 유지에 기여해 왔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관련 지원을 받은 학생만 2천명이 넘는다. 이처럼 대학 구성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주는 것 자체가 공주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어 왔다. 그런데 통합이 현실화되어 학생들의 생활권이 대전으로 이동한다면, 공주가 쌓아온 모든 지역 유지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기반이자 인구 유지의 핵심 인프라이다. 국립대학 통합 문제는 대학 간 경쟁력 제고의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공주대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국립대로서 오랜 세월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경제를 버텨온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의 기능이 통합이라는 명분 아

래 외부로 이전된다면, 그것은 곧 공주시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며 저는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통합이 아니라, 공주대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을 지켜내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 발전 전략이다.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주대의 비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공주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주체이다.

공주대는 공주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과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주시민의 뜻과 함께 공주대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공주의 자존심이자 교육의 중심인 공주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 의회 소식

## 금성배수펌프장 상부 공간 활용 방안



공주시의회 의원  
이용성

2024년 말 기준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629만 8천대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된 수치이기도 하며, 인구 1.95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그에 따른 민원 현장의 목소리 또한 높다. 우리 시의 교통과 업무 중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공주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은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지점의 토지주에게 매매의 향서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를 해야 비로소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우후죽순 들어오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통 3년 주기로 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에 맞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름 까다롭게 선정을 하여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부분에 대해 저와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민들께 늘 이야기하는 공정한 심의, 다수의 공익에 따른 결정 등 저희는 할말도 참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되고,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자만과 오만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며 자칫, 정치병에 걸릴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했었던 무령로 124번지를 포함한 인근 부지 건이 그러했고, 결국 백여명이 넘는 인근 주민의 주차장 조성 동의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조금 더 객관성 있는 결정과 뒤따르는 희생에 대한 부분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주시에는 행정동인 웅진동 안에 법정동인 금성동이 있다. 공산성과 인접한 지역이며, 공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더불어 많은 차량의 진출입이 있고, 장날이면 경적 소리에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관통하는 장소다. 그런 공주시 금성동에는 금성배수펌프장이 있다.

금성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예상지역인 산성동, 금성동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예방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시설물이다. 여전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수지 면적 3,400㎡ 상부 공간의

추가적 활용 건에 대해서는 항상 뒤따라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송영월 의원님이 요구했던 시설개선 및 개량 계획과 상부 복개 후 주차장 추진계획 여부, 복개 시 장·단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장점은 공원으로 하고, 단점만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1년이 넘는 이 시점에도 계속되는 관련 민원에 시설물의 기능은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았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안배수펌프장은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부산시 또한 지자체 내의 한 배수펌프장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시 마포구의 성산유수지 상부의 공원 조성 및 34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례, 그리고 목동펌프장 상부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 등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 측면에서 조성 후에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금성배수펌프장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은 BRT 차고지 선정과 관련하여 사라지는 알밤센터 주차장의 대안으로도 좋을 것이고, 매년 늘어나는 공산성 인근의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장날이면 빼곡하게 들어서는 이용객들의 차량정체에 따른 분산 효과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모기 유충의 발원지, 늘 제기되는 악취와 경관 문제, 땀 뚫려있는 지하구조물 같은 도심 내 기피 시설에 대해 우리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학교 재배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이범수

지난 4월 의정토론회 이후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와 우려 섞인 의견을 보내 주셨다.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덕분에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 논의가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다.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남아 있다. 공주교육청과 공주시가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만, 도의회 조례 개정과 학부모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전·재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니,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이에 중학교 이전·재배치가 확정될 경우 공주시와 공주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 현재 교육청은 공주중과 공주여중을 통합해 약 558명, 21개 학급 규모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공주여중 자리는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청 이전과 함께 시립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까지 검토되고 있다.

- 공주중과 교육청 부지는 공산성에서 왕릉원,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클러스터와 맞닿아 있고, 황새바위성지와도 위치가 가까워 공주시 주관으로 대규모 관광단지의 일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외비'라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절차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육체육과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함구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된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이번 논의를 교육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우려를 표한다. 혹시나 원도심이 텅 빌지 걱정하는 시선일 것이다. 그러나 강북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공주중, 공주여중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며, 재배치 이후의 경제적 효과 역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초점을 바꿔서 학교 이전 후 남게 될 제법 넓은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공주시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도움이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공주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도록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원도심은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다. 공주중은 1973년, 봉황중은 1974년, 공주여중은 1979년에 지어졌다. 40~50년 된 낡은 건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강북 지역에 시설이 좋은 학교를 제대로 지어 놓으면 너도나도 그 학교로 진학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학교들도 시

설 개선 경쟁에 나설 것이다. 이는 학교 재배치가 가져올 또 다른 긍정적 효과이다.

공주는 예로부터 교육도시라 불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가정이 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공주에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재배치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주중·공주여중 학부모 투표이다. 학교별로 학부모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이전·재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 의사가 간주되기에, 그 문턱을 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이기에 앞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이 똑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공주중, 공주여중 학부모가 계시다면 꼭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재배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공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함께 원도심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